

마르틴 브레즈닉(Martin Bresnick)의 「두 (性)을 위하여: 천국의 문」 (*For the Sexes: The Gates of Paradise*, 2001)을 통해서 살펴본 멀티미디어 작품의 이해와 연주에 대한 고찰 및 제언*

박 서 영

< 목 차 >

I. 서론	
II. 음악과 관계 자료의 연관에 대한 고찰 및 적용	1. 음악 및 관련 자료들의 습득 과정과 연주를 위한 준비
1. 시와 그림, 음악, 동영상에 대한 고찰	2. 연주에 필요한 실질적인 절차와 유의할 점
2. 적용	IV. 결론
III. 멀티미디어 작품에 대한 이해 및 연주에 대한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본 연구는 마르틴 브레즈닉(Martin Bresnick, 1946-)의 멀티미디어 작품인 「두 성(性)을 위하여: 천국의 문」 (*For the Sexes: The Gates of Paradise*, 2001)의 분석을 통해 음악, 시, 동영상의 상관관계를 살펴봄으로써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멀티미디어 작품의 연주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자 이루어졌다. 이 작품은 브레즈닉의 음악과 영국의 시인이자 미술가인 윌리엄 블레이크(William Blake, 1757-1827)의 같은 제목의 시와 그림, 동영상이 결합된 작품이다. 연구 과정에서 1) 음악과 관계 자료의 연관에 대한 고찰 및 적용, 그리고 2) 멀티미디어 작품 연주를 위한 준비 및 실질적인 절차와 유의점에 대한 제언이 다루어졌다. 따라서 본 연구는 멀티미디어 작품을 연주하고자 희망하는 연주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 마르틴 브레즈닉, 「두 성(性)을 위하여: 천국의 문」 (*For the Sexes: The Gates of Paradise*), 윌리엄 블레이크, 멀티미디어, 피아노, 시, 음악, 그림

* 본 연구는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를 재구성하였음.

I. 서론

테크놀로지의 발달은 많은 변화를 가져와서 예술의 모든 분야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컴퓨터와 스마트폰 없이는 살 수 없고, 멀티미디어 작품은 전자 음악이나 컴퓨터 음악의 발달과 더불어 많이 작곡되고 실험되어지고 있으며 연주는 나날이 증가하고 이제는 하나의 장르이자 현상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멀티미디어 작품을 이해하고 연주하는 것은 전통적인 기보법과 연주와 병행하여 우리에게 보다 새롭고 풍부한 경험을 선사한다.

그러나 멀티미디어 작품을 연주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연구하고, 효과적인 연주를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마르틴 브레즈닉(Martin Bresnick, 1946-)의 멀티미디어 작품인 「두 성(性)을 위하여: 천국의 문」(*For the Sexes: The Gates of Paradise*, 2001)을 통해 의견을 제시하였다.

미국의 명성 있는 작곡가이자 영향력 있는 스승으로 널리 알려진 예일대학교 교수인 마르틴 브레즈닉의 「두 성(性)을 위하여: 천국의 문」은 피아노 독주와 DVD 프로젝션(projection)을 위한 작품으로, 같은 제목의 영국의 위대한 시인이자 화가이며 판화가인 블레이크(William Blake, 1757-1827)의 시와 그림들로부터 영감을 받아 작곡되었다(Bresnick, 2003, p. 1). 이 곡은 블레이크의 시와 그림의 구성에 따라 프롤로그(Prologue), 본문, 에필로그(Epilogue)로 구성되어 있고, 연주 시간은 약 31분 소요되며, DVD 프로젝션 없이 피아노 독주만으로도 연주가 가능하다. 피아니스트이며 브레즈닉의 부인인 무어(Lisa Moore, 1960-)에게 헌정되었고, 2001년 3월 20일에 그녀에 의해 미국 콜럼비아 대학(Columbia University)의 밀러극장(Miller Theater)에서 초연되었다(Bresnick, 2005, p. 1).

작곡가 브레즈닉은 피아니스트가 연주할 때 동시에 시 낭송과 노래를 하도록 악보에 명시해 놓았는데 이것은 블레이크가 말년에 자신의 시를 노래로 부른 것에 착안하고, 또 음유시인의 전통이 반영된 것이기도 하다(Bresnick, 2006). 또한 와인버그(Leslie Weinberg)와 로버트 브레즈닉(Robert Bresnick)이 움직이는 동영상으로 제작한 블레이크의 그림들과 그림들 아래의 짧은 삽입 구들이 DVD 프로젝션을 통해 상영됨으로써, 음악과 시와 미술작품의 동영상들로 이루어진 멀티미디어 작품이 된다(Bresnick, 2005, p. 1).

음악과 시, 그리고 동영상은 우리가 듣고 느끼며, 생각하고 상상하며,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동시에 가능하게 함으로써 통합예술의 효과를 극대화시킨다. 또한 우리는 이전 시대에 살았던 시인이자 미술가였던 블레이크의 예술 작품과, 그것을 음악과 통합시킨 현대의 작곡가 브레즈닉의 해석과 창작, 또 이 작품을 연주할 수 있는 연주자이자 감상할 수 있는 청중인 우리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놀랍고도 경이로운 경험을 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멀티미디어 작품을 보다 효과적으로 연주하고 작곡가의 의도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 어떻게 작품을 이해하고 분석하고 적용시키며, 어떠한 과정을 거쳐 준비하고 연습해야 하는지 고찰하고, 멀티미디어 작품 연주를 위한 실질적인 절차와 유의할 점에 대한 제언을 제시함으로써, 멀티미디어 작품을 연주하고자 희망하는 연주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II. 음악과 관계 자료의 연관에 대한 고찰 및 적용

1. 시와 그림, 음악, 동영상에 대한 고찰

가. 블레이크의 시와 그림

블레이크는 영미 문학의 가장 위대한 시인 중 한사람이자, 뛰어난 화가이며 판화가이다. 판화가로서도 그의 업적은 아주 중요한데, 그만의 독창적인 기법을 개발하고 문구와 삽화를 한 판에 함께 담아 한 번에 인쇄가 가능하게 하고, 본인 스스로 인쇄하고 판매하였다(Bindman, 2000, p. 7). 그는 창작부터 판매까지 이 모든 과정을 본인 스스로 함으로써 출판사나 후원자, 정치계, 종교계의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었기에 자유롭게 그의 창작활동을 할 수 있었고, 쉽게 대중들에게 다가갈 수 있었다. 브레즈닉은 예술가로서의 블레이크의 뛰어나면서도 독특하고, 또 시대를 앞서가는 그의 천재성과, 이러한 그의 정신을 높이 평가하였다(Bresnick, 2006). 블레이크는 생전에는 크게 인정받지 못하였지만,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새롭게 재조명되면서, 그의 위대함이 재평가되었다. 그의 시와 그림, 판화들에서는 그의 독창성과 표현력, 비전, 혁신적 생각, 낭만성 등을 볼 수 있다. 블레이크의 널리 알려진 작품들로는 시로부터 규모가 큰 복합적 예술작품인 「순수와 경험의 노래」(*Songs of Innocence and of Experience*), 「천국과 지옥의 결혼」(*The Marriage of Heaven and Hell*), 「네 개의 분신」(*The Four Zoas*), 「밀턴」(*Milton a Poem*), 「단테의 신곡」(*Dante's Inferno*), 「욥기」(*Book of Job*), 「예루살렘」(*Jerusalem*) 등이 있다.

블레이크의 「두 성(性)을 위하여: 천국의 문」은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짧고 간단하게 보이는 시와 그림들로 구성되어 있다. 1793년에 출판되었다가 블레이크의 말년에 다시 제작이 되어 1818년에 출판되었다(Erdman, 1988, p. 800). 나중에 출판된 작품에는 시(텍스트)가 담긴 4개의 판들이 첨가되었는데, 두 개의 판으로 구성된 약간의 그림이 장식으로서만 첨가되고 글씨들이 주를 이루는, 이 작품의 본문인 “천국의 열쇠(The Keys of the Gates)”라는 부제가 달려 있는 시와, 시와 그림이 있는 에필로그, 제목 페이지로서의 프롤로그(기존의 제목에 시를 첨가함)를 포함하여 21개의 판들로 늘어나게 되었다. 제목도 「어린이를 위하여: 천국의 문」(*For Children: The Gates of Paradise*)에서 「두 성(性)을 위하여: 천국의 문」(*For the Sexes: The Gates of Paradise*)으로 바뀌었으며, 그림(삽화)과 그림 아래의 간략한 삽입구(commentary)들이 조금 길어진 판들도 있고, 총 21개의 판들 중 대부분은 다시 제작되었다(Erdman, 1988, p. 813). 말년에 블레이크가 이 작품을 다시 제작하였다는 것은 이 작품의 중요성과 그의 마지막 비전을 보다 완벽하게 알리고 싶어 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작품은 인간의 탄생부터 죽음까지의 여정을 표현한 것으로, 장식적 표지인 프런티스피스(Frontispiece)와 표지의 프롤로그를 거쳐, 인간의 성장을 돕고 함께 하는 네 가지 구성요소인 물(water), 대지(earth), 공기(air), 불(fire)을 이야기하며, 사춘기를 통해 다시 태어나고, 이성애 눈뜨며, 기성세대와 갈등하고, 욕망과 좌절을 겪으며, 결국은 고난 속에서 희망을 가지게 되고, 그 깨달음으로 죽음을 맞게 되어도 두렵지 않게 되며 더 이상적인 세상으로 갈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가지며, 에필로그로 마무리 된다. 에필로그의 8줄의 시는 블레이크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썼던 시로서(Bresnick, 2006), 그만의 가장 독창적이고도 완벽한 시라는, 권위 있는 영미 문학자

중 한 사람인 블룸(Harold Bloom, 1930-)의 찬사를 받았으며(Bloom, 1963, pp. 435-436), 블레이크의 마지막 비전을 보여주고 있는 이 작품의 메시지가 용서와 희망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것을 뜻한다고 볼 수 있겠다.

블레이크의 「두 성(性)을 위하여: 천국의 문」에서는 성서, 셰익스피어(William Shakespeare, 1564-1616), 밀턴(John Milton, 1608-1674), 단테(Dante Alighieri, 1265-1321), 번연(John Bunyan, 1628-1688), 그리고 블레이크 자신의 다른 작품들 등으로부터의 영향을 볼 수 있다(Blake, 1968). 특히 성서의 율기는 아주 중요한데, 이 작품의 시작(프런티스피이스)과 끝(번호가 매겨진 그림판들 중 마지막인 제16번 그림판)의 그림 아래 삽입구들을 율기의 구절들, 7장 17절과 17장 14절, “사람이 무엇이관대 주께서 크게 여기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What is man, that you should magnify him, that You should set Your heart on him,)”와 “무덤더러 너는 내 아버라, 구더기더러 너는 내 어미, 내 자매라 할진대(if I say to corruption, ‘You are my father.’ and to the worm, ‘You are my mother and my sister.’)”(킹 제임스 버전, 개역한글판, 1985, p. 768, p. 777)에서 가져왔으며, 전체 구성도 율기와 같은 프롤로그, 본문, 에필로그로 되어 있으며, 해설자가 이야기를 들려주는 율기와 같은 설정이다.

또한 이 작품의 제7번 그림판에서, 블레이크가 “그녀도 성스러운 이미지인가(Is She also the Divine Image)?”라는 삽입구와 함께 여성을 날개 없는 천사로 묘사하며 남성과 동등한 중요한 존재임을 부각시킨 것은 매우 혁신적인 것으로서, 그가 남성과 여성의 분류(또는 남성성과 여성성의 분류)와 성적인 투쟁이 이 세상에서의 삶에서 매우 문제가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블룸은 블레이크가 셰익스피어, 호돈(Nathaniel Hawthorne, 1804-1864), 프로스트(Marcel Proust, 1871-1922)와 더불어 인간의 삶에서의 성적인 구분과 성적인 질투의 중요성을 인식했다고 평하였으며(Bresnick, 2006), 평론가 헤이즈(Tom Hayes)는 제8번 그림판 “내 아들! 내 아들아!(My Son! My Son!)”에서 블레이크가 성적인 질투와 더불어 세대 간의 갈등이나 아버지와 아들의 갈등을 인지한 것은 그가 심리학자 프로이트(Sigmund Freud, 1856-1939)나 라캉(Jacques Lacan, 1901-1981)보다 앞선 것이었다고 평하며 이 작품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다(Hays, 2004, pp. 158-159).

각각의 판들은 간단하게 보이지만, 문구들과 그림들은 사실은 매우 복잡적이고도 다중적인 의미를 지니며, 서구의 역사, 문화, 문학, 예술, 신화, 성서 등과 관련이 있고, 전문적인 학자들조차도 블레이크의 시와 그림의 복합적인 암시, 모순, 상징, 신비성, 상상, 혁신적 생각 등으로 인해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워 논쟁을 계속하고 있지만, 마음을 열고 차근차근 접근해 가다 보면, 블레이크가 간절히 전하고자 했던 그의 희망의 마지막 비전을 브레즈닉에 의해 재탄생된 멀티미디어 작품 「두 성(性)을 위하여: 천국의 문」을 통해서 전달받고 감동받고 즐길 수 있을 것이다.

나. 브레즈닉의 음악

브레즈닉의 작품은 블레이크의 시와 그림의 순서와 구성에 따라 프롤로그, 본문, 에필로그로 구성되는데 여섯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프롤로그는 음악의 제1부분, 본문은 제2부분부터 제5부분까지, 에필로그는 제6부분에 해당되는데 이러한 여섯 부분은 각각 마디 수가 다시 시작된다.

프롤로그인 제1부분에서는 여행자의 발걸음을 의미하듯 규칙적이고 계속 흘러가는 리듬의 악구들로 음악이 시작하여 진행되다가, 넓은 도약의 화음들이 문을 의미하듯 멈춰지며 프롤로그의

시가 낭송되기 시작한다. 제2부분은 성서의 욕의 질문인 프런티스페이스의 삼입구로 시작하여, 물, 공기, 대지, 불의 네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지는 여정을 소개하고, 본문의 부제라고 할 수 있는 “천국의 열쇠(The Keys of the Gates)”의 두 구절로 끝맺는다. 개인의 인생 그 자체, 탄생부터 죽음까지가 제3부분부터 제5부분까지이며, 에필로그가 마지막 제6부분이다.

에필로그 부분은 브레즈닉이 판타지아(*Fantasia*)라고 명명한 부분으로, 노래를 제외하면 시 낭송 없이 음악만으로 이루어진 부분인데 「길 잃은 여행자의 꿈」(*The Dream of the Lost Traveller*)이라는 제목으로 먼저 작곡된 부분이다. 이 부분은 여행자 혹은 방랑자의 꿈을 의미하는데, 비교적 느리면서 웅장한 코드들이 연주되거나, 강한 악센트(accent)를 동반한 보다 빠른 악구들이 연주된다. 크고 격정적인 부분이 연주된 직후 갑자기 고요해지면서 피아노 반주와 이 곡의 주제인 노래가 나오고, 이 주제가 코랄처럼, 춤곡처럼(*Dance-like*) 변주되다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자유롭게(*Pensive, Improvisatory*) 변주되는 부분을 거쳐 에필로그의 시작부분의 화음과 음형으로 소리가 사라질 때까지 여운을 남기며 조용히 끝난다. 동영상에서는 이전에 나왔던 블레이크의 그림판들의 그림들이 인생의 여정을 종합하듯 다시 등장하며 어우러지고, 노래가 나올 때에는 화면에 아무것도 등장하지 않아서 청중들은 피아노와 노래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에필로그 그림판의 그림은 노래 이후에 등장하며, 동영상의 마지막에는 주인공인 여행자가 돌면서 우주 어디론가 사라지는, 혹은 다른 세상으로 전이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사라진다. 에필로그 부분은 판타지아라는 부제에 걸맞게 동영상이 없어도 음악만으로 충분히 상상의 나라를 펼 수 있을 만큼 아름답지만, 먼저 음악이 작곡되고 후에 동영상이 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동영상 또한 무척 아름답고, 음악과 조화를 이루며 감동을 주고, 블레이크와 브레즈닉의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있어서, 동영상을 병행해서 연주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브레즈닉은 블레이크의 「두 성(性)을 위하여: 천국의 문」의 에필로그의 시만을 가지고 그의 일련의 다양한 열 두곡의 시리즈 「가난한 음악들」(*Opere della Musica Povera*) 중 한 곡으로 이 곡 「길 잃은 여행자의 꿈」을 작곡하면서, 블레이크의 「두 성(性)을 위하여: 천국의 문」의 전체 작품을 멀티미디어 세팅의 작품으로 만들 구상을 하고 있었다고 밝혔으며(Bresnick, 2003, p. 1), 이미 대학시절 블레이크의 여행자의 그림과 삼입구 “해 질 녘 걸음을 재촉하는 여행자(The Traveller hasteth in the Evening)”(제14번 그림판)를 보았을 때부터 그 간단하면서도 직설적인 메시지가 강렬하여 언젠가 작품을 만들어 보고 싶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가 결국 규모가 큰 멀티미디어 작품으로 탄생시켰다(Bresnick, 2006).

또한 브레즈닉은 블레이크의 「두 성(性)을 위하여: 천국의 문」이 독자들에게 블레이크의 입문서가 되고, 브레즈닉의 작품 「두 성(性)을 위하여: 천국의 문」도 마찬가지로 브레즈닉을 알게 되는 청중들의 입문 작품이 되기를 소망하여, 간단하고 명료한 음악을 작곡하려는 의도로, 이 작품을 하나의 간단한 주제에서 비롯되는 변주곡 시리즈로 구성하였다(Bresnick, 2006). 주제는 따로 먼저 작곡되었던 「길 잃은 여행자의 꿈」이면서 후에 「두 성(性)을 위하여: 천국의 문」의 에필로그 부분이 된 제6부분에서 블레이크의 에필로그의 시를 피아니스트가 노래로 하는 부분이다<악보 1>.

<악보 1> 브레즈닉의 「두 성(性)을 위하여: 천국의 문」(For the Sexes: The Gates of Paradise), 에필로그/제6부분, 마디 133-148

133 Voice
 Tru-ly My Sa-tan thou art but a Dunce and dost not know the Gar-ment from the Man. Eve-ry Har-lot was a Vir-gin once Nor cans't thou ev-er change Kate in-to Nan Tho'

141
 thou art Wor-shipped by the Names Di-vine Of Jes-us and Je-ho-va: thou art still the Son of Morn in wea-ry Night's de-cline The lost travel-ers Dream un-der the Hill.

PL120

브레즈닉은 보다 극적인 표현을 위해 블레이크의 시에서 나뉘어져 있던 탄생과 죽음에 관한 구절들을 한데 묶어서 원래 블레이크의 예술작품의 순서를 조금 바꾸었다. 또한, 피아니스트이며 낭송자인 연주가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유도하고, 그래서 청중들이 더 명확히 전달받아 공감할 수 있도록 블레이크의 원래 시에 없는 약간의 맞춤법을 변형하거나 첨가하였고, 피아노를 연주할 때의 지시어에도 극적인 요소를 가미하였다.

브레즈닉의 음악은 빠르기(tempo)와 음악적 구성요소 혹은 짜임새(texture)가 제1부분과 제6부분이 같아서 크게 대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본문에 해당되는 나머지 부분들도 부분 자체나 다른 부분과 대칭을 이루기도 한다. 또한 음계나 리듬에 있어서도 대칭을 이루는 많은 요소들이 브레즈닉의 음악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전체 곡에 하나의 통일성을 주기 위해 결정적인 부분들에 공통되는 음악 재료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한 예로 제4부분을 제외한 모든 부분은 장식음으로 그 시작을 알리는데 이러한 공통점은 전체 곡에 통일성을 준다.

하나의 드라마를 만들고 인간의 탄생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장가를 삽입하기도 하고, 인생을 직물 짜기에 비유한 블레이크의 표현을 극대화시키려고 직물을 짜는 인간의 행위와 직물 기계, 그리고 소리를 연상할 수 있도록 연주자가 플라스틱 카드를 피아노 건반에서 긁는 연출을 지시하는 등, 단순히 세 가지 요소를 결합하는 데에서 나아가 그로 인해 청중들이 정서적, 감성적으로 공감하게 되는 단계에 도달하게 한다. 이러한 구체적인 예들은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다. 동영상으로 제작된 블레이크의 그림판들

마르틴 브레즈닉과 함께 작업한 와인버그와 로버트 브레즈닉이 제작한 블레이크의 그림들의 동영상에는 블레이크의 그림들이 변형되지 않고 원형 그대로 사용되었는데, 인물들의 움직임 표현하기 위해서 자바나 인도네시아의 인형극의 기법을 도입하여, 여러 겹으로 겹치며 연속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게 하였다(Bresnick, 2006)<그림 1>.

<그림 1> 브레즈닉의 「두 성(性)을 위하여: 천국의 문」(*For the Sexes: The Gates of Paradise*), 동영상 캡처, 여행자의 움직임, 00'39" 와 20'01"



와인버그는 브레즈닉의 작품이 잘 지어진 건축물과도 같아서, 함께 작업을 하는 것이 용이했다고 진술했다(Bresnick, 2006).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음들은 여행자의 움직임과 일치할 수 있었으며, 빨라지거나 느려지거나, 또 부분과 부분 사이의 반복되는 소절 등은 동영상의 인물과 사물을 한층 유연하게 극화시켰다. 또한 와인버그는 블레이크의 그림들에 대해서, 그림판 안에 담겨있는 모양과 현상이 그 자체만으로도 풍부하여서, 브레즈닉의 음악에 쉽게 결합시켜 이야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었던 점을 높이 평가하였다(Bresnick, 2006).

동영상에는 블레이크의 그림들을 극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흑백이었던 블레이크의 작품들에 색채가 첨가된 부분들이 있으며, 강조의 여부에 따라 인물이나 사물이나 배경이, 크거나 작게 연출되거나, 화면의 좌우나 위아래로 움직이거나, 혹은 회전되는 부분들이 있다. 또한 작품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블레이크의 그림판들 중 제14번 그림판에 등장하는 상징적인 여행자(The Traveller)를 맨 처음과 맨 끝에도 출연시킴으로써 하나의 극으로 유기적으로 연관시켰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여행자가 우주를 배경으로 돌면서 어디론가 사라지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 세상에서의 죽음 뒤에 더 이상적인 세상으로 초연히 간다는 희망적인 비전을 전하고자 하였다.

특히, 14분정도의 긴 에필로그/「길 잃은 여행자의 꿈」부분에서, 이전에 나왔던 그림판들을 연결고리를 만들어 다시 등장시키고 융합하며 꿈을 묘사하고, 에필로그 그림판을 아름답게 각색하고 여행자의 마지막 퇴장에 여운을 남기며 끝맺은 것은 와인버그와 로버트 브레즈닉의 놀라운 상상력과 통찰력의 산물이라 하겠다.

2. 적용

가. 시, 음악, 동영상의 결합

브레즈닉은 블레이크의 시와 브레즈닉의 음악, 블레이크의 그림판으로 만들어진 동영상을 결

합하고, 이 세 가지 재료들을 통합시킴으로써 생성되는 정서적 공감대를 청중들이 즐길 수 있도록 신중하게 계획하였다. 브레즈닉이 한편의 드라마를 만들기 위해 이 작품에서 어떻게 시와 음악과 동영상을 결합시켰는지 그 예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1) 타이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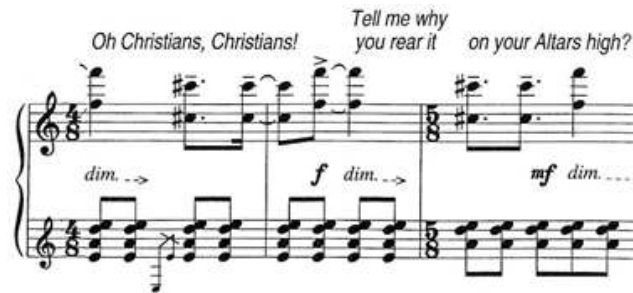
타이밍은 멀티미디어 작품을 연주하는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 피아니스트가 시를 낭송하고 노래를 하는 브레즈닉의 악보에는 동영상과의 일치를 위하여 큐 사인이 있고, 타이밍을 맞추기 위한 도돌이표와 늘임표, 동영상의 그림이 바뀌는 것에 대한 최소한의 지시가 있다<악보 2>. <악보 2>의 마디 70의 예를 보면, 프롤로그/제1부분으로부터 본문의 제2부분으로 가는 연결에서 마지막 한마디를 필요한 만큼 되풀이 하게 하여, 동영상과의 시간을 맞출 수 있도록 하였다.

<악보 2> 브레즈닉의 「두 성(性)을 위하여: 천국의 문」(*For the Sexes: The Gates of Paradise*), 프롤로그/제1부분, 마디 45-70

2) 시(텍스트)의 뜻과 음악의 표현의 일치

블레이크의 시의 뜻, 즉, 단어의 뜻이 음악에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한 예로, 블레이크의 시 “오 크리스찬들, 크리스찬들이여! 어찌하여 당신들의 높은 제단 위에 그 법을 양육하는지 말해 주겠습니까(Oh Christians, Christians! Tell me why you rear it on your Altars high)?”라는 문장에서, ‘high’를 피아니스트가 낭송할 때, 음악에서도 오른손의 음들이 상행한다<악보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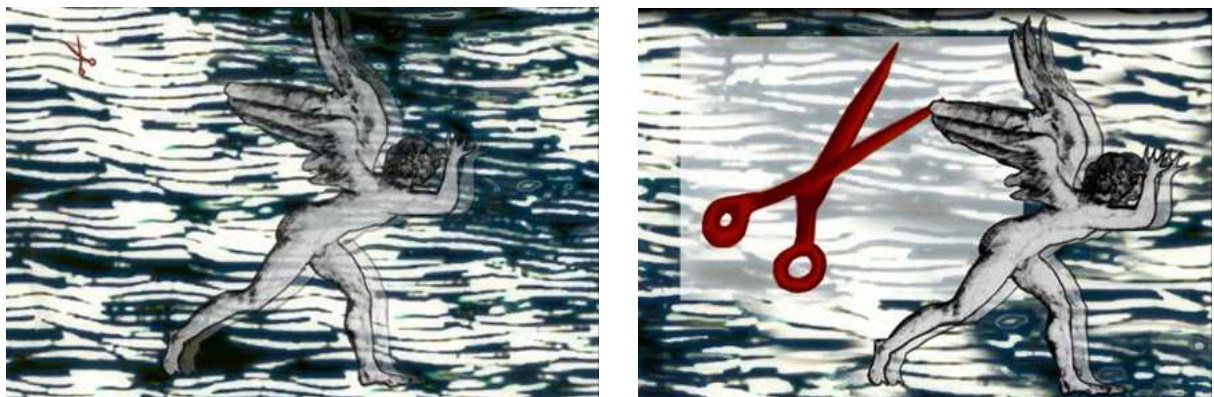
<악보 3> 브레즈닉의 「두 성(性)을 위하여: 천국의 문」 「*For the Sexes: The Gates of Paradise*」, 프롤로그/제1부분, 마디 63-65



3) 음악과 동영상의 표현의 일치

에필로그/제6부분에서 동영상의 빨간색 가위가 멀리서부터 움직이며 어린 천사에게 점점 다가 오면서 커질 때, 음악도 작게 시작하여 커지다가, 가위가 어린 천사의 날개에 닿는 순간 더 크고 느린 코드로 연주되기 시작한다<그림 2, 악보 4, 악보 5>.

<그림 2> 브레즈닉의 「두 성(性)을 위하여: 천국의 문」 「*For the Sexes: The Gates of Paradise*」, 동영상 캡처, 에필로그/제6부분, 동영상 캡처, 점점 커지는 가위, 21'47" 과 22'20"



<악보 4> 브레즈닉의 「두 성(性)을 위하여: 천국의 문」 (*For the Sexes: The Gates of Paradise*), 에필로그/제6부분, 마디 69-72



<악보 5> 브레즈닉의 「두 성(性)을 위하여: 천국의 문」(For the Sexes: The Gates of Paradise), 에필로그/제6부분, 마디 77-79



4) 세 가지 요소의 결합과 상호작용의 관계

블레이크의 제14번 그림판의 삽입구 “해 질 녘 걸음을 재촉하는 여행자(The Traveller hasteth in the Evening)”가 등장할 때, 여행자가 서두른다는 문장의 뜻이 반영되어 음악에서도 처음 여행자의 움직임보다 여행자의 발걸음이 빨라지는 것을 묘사하며 ‘*accel.----->*’가 표기되고, 동영상에서도 여행자가 여러 겹으로 훨씬 빨리 나타났다가 사라지면서 여행자의 서두르는 움직임이 표현된다<그림 3, 악보 6, 악보 7>.

<그림 3> 브레즈닉의 「두 성(性)을 위하여: 천국의 문」(For the Sexes: The Gates of Paradise), 동영상 캡처, 여행자의 움직임, 00'34"와 16'11"



<악보 6> 브레즈닉의 「두 성(性)을 위하여: 천국의 문」 (*For the Sexes: The Gates of Paradise*), 프롤로그/제1부분, 마디 1-5

○○
The Traveller *

Andante Cantabile (♩ = 96-104)

<악보 7> 브레즈닉의 「두 성(性)을 위하여: 천국의 문」 (*For the Sexes: The Gates of Paradise*), 제5부분, 마디 20-23

(wait for traveller) (accel.----->)
(sempre legato)

20

나. 극적 효과를 위한 장치- 결합된 시, 음악, 동영상에서 생성되는 새로운 효과

브레즈닉은 시와 음악과 동영상이 결합하여 그 의도하는 바를 청중이 단순히 이해할 수 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 깊이 공감할 수 있는 장치들을 시도하였는데, 블레이크의 시나 그림에는 없는 브레즈닉만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자신의 음악에 자장가를 삽입하고, 시에 선율을 붙였으며, 연극적 대사를 지시하고, 직물기계를 재현하였다.

1) 노래 (자장가와 에필로그의 주제 선율)

브레즈닉은 인간의 탄생을 상징하며 어머니와 아기가 등장하는 블레이크의 제1번 그림판이 화면에 상영될 때, 음악에 자장가를 삽입하여 피아니스트가 노래하고 허밍하게 함으로써 단순히 보고 듣고 느끼는 것에서 나아가 상상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준다<악보 8>.

<악보 8> 브레즈닉의 「두 성(性)을 위하여: 천국의 문」(For the Sexes: The Gates of Paradise), 자장가, 제3부분, 마디 26-31

(lullaby)
mf
lu - lay lu - lay ay lu ay lay ay
cresc. mp cresc. ... f

에필로그의 주제이자 이 작품 전체의 주제가 되는 노래 “길 잃은 여행자의 꿈(The Dream of the Lost Traveller)”은 연주자가 노래를 하는 부분인데, 화면에는 아무런 그림도 상영되지 않고, 청중은 크고 소용돌이치는 음악과 동영상으로부터 갑자기 조용하고도 간결한 피아노 반주부터 음악을 따라가며 노래가 된 블레이크의 시를 듣게 된다. 연주자 자신이 음유시인이 되고, 전체 연주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서의 예상하지 못한 피아니스트의 노래라는 점에서 신선함을 주며(Auler, 2006, p. 134), 청중은 연주자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생각하며 더욱 관심을 갖고 집중할 수 있게 된다<악보 9>.

<악보 9> 브레즈닉의 「두 성(性)을 위하여: 천국의 문」(For the Sexes: The Gates of Paradise), 노래 “길 잃은 여행자의 꿈(The Dream of the Lost Traveller),” 에필로그/제6부분, 마디 133-136

133 Voice
Tru-ly My Sa-tan thou art but a Dunce and dost not know the Gar-ment from the Man.

2) 시 낭송 (연극적 대사)

아버지와 아들이 등장하며 서로의 갈등을 묘사하는 블레이크의 제8번 그림판이 상영되기 시작할 때, 연주자는 블레이크의 시의 한 음절씩을 음악의 16분 음표 하나에 각각 맞춰서 아들에게 말하듯이 하여 보다 극적으로 낭송하며 하나의 연극무대를 연상하게 한다<악보 10>.

<악보 10> 브레즈닉의 「두 성(性)을 위하여: 천국의 문」 (*For the Sexes: The Gates of Paradise*), *Quasi parlando*, *Tempo Libero*, 제4부분, 마디 1-6

Tempo Libero *

My Son, My Son *quasi parlando* *f* My Son my son thou trea-test me

1 ♩ = 84

p *poco f*

* voice in rhythm with piano, voice always slightly louder.

3) 소도구(플라스틱 카드) 사용

인생을 직물기계에 비유한 블레이크의 의도를 최대한 반영하려 검은 건반과 흰 건반을 양쪽 손바닥으로 빠르게 교대로 누르면서, 플라스틱 카드를 사용하여 피아노의 검은 건반을 끊임으로 켜, 청중이 시의 뜻과 더불어 직물기계를 짜는 인간의 행위를 보면서, 직물기계의 소리를 연관시키며 총체적으로 직물을 짜는 인간과 인생을 쉽게 연관시키도록 한다<악보 11>.

<악보 11> 브레즈닉의 「두 성(性)을 위하여: 천국의 문」 (*For the Sexes: The Gates of Paradise*), 플라스틱 카드의 사용, 제5부분, 마디41-42

♩ = 60

(R.H.)

(R → L)
(sweep across black keys with plastic card)

When weary Man enters his Cave
He meets his Saviour in the Grave

f *l.v.* *l.v.*

III. 멀티미디어 작품에 대한 이해 및 연주에 대한 제언

1. 음악 및 관련 자료들의 습득 과정과 연주를 위한 준비

피아노곡을 연주하려면 그 곡의 배경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공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멀티미디어 작품은 하나의 독주곡보다 숙지해야 할 사항들이 많으므로 각각의 요소들을 따로 따로, 또 총체적으로 학습하여야 한다.

가. 음악의 습득

필자의 경우, 피아노 독주곡으로 먼저 작곡된, 「두 성(性)을 위하여: 천국의 문」의 에필로그 부분인 「길 잃은 여행자의 꿈」을 블레이크의 시나 그림, 혹은 그 어떤 정보도 없이 음악만 음반으로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 간단하고 명료하면서도 힘이 있고, 상상력을 자극시키는 음악에 매료되어 악보를 찾아보게 되었다. 필자가 악보를 구해서 살펴보니, 에필로그 부분에서는 피아니스트가 노래를 해야 하는 부분이, 프롤로그와 본문에서는 피아노를 치면서 동시에 시를 낭송하는 부분이 많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본문에서도 자장가를 부르고 허밍을 하는 부분이 있다). 이 작품을 연구하고, 연주하는 첫 번째 단계로 음악이 익숙해지도록 악보를 습득하며 피아노 연습을 시작하였다.

멀티미디어 작품의 음악을 연주할 때는 특히 음악에 명시된, 다른 요소들과의 결합을 위한 각종 큐 사인이나 빠르기, 지시어 등을 꼼꼼하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용시키고, 외울 정도까지 음악이 익숙해지도록 완성해 놓아야 하며, 피아노 연주만을 하고 있을 때에도 다른 요소들과 함께 연주하는 것처럼 상상하며 연습을 하여 기반을 마련하고 있어야 다른 요소들과 결합되었을 때 그 나머지 요소들이 자연스럽게 흡수가 되고, 시간 낭비를 줄이게 된다.

나. 시 낭송과 노래 부르기

멀티미디어 작품을 학습할 때 개개인의 습득 과정과 음악과 관련된 요소들을 공부하는 순서는 다를 수 있겠지만, 대부분 일단 악보에 나타나 있는 요소들부터 관심을 갖게 되기 마련이다. 브레즈닉의 작품을 연구하면서, 음악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난 후 텍스트인 블레이크의 시 낭송을 음악에 맞추어 시도하였는데, 브레즈닉의 작품은 블레이크의 시와 그림들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력 없이는 제대로 이해할 수 없음을 깨닫고, 피아노 연습과 블레이크의 시와 그림들에 대한 공부를 병행하였다. 블레이크의 시의 모호하고 다중적인 의미와 암시, 많지 않은 「두 성(性)을 위하여: 천국의 문」에 관한 자료들, 영미 문화권에 대한 필자의 전반적인 이해의 부족으로 인해 블레이크의 시와 그림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 친분이 있는 영문학 전공자 원어민에게서 도움을 받았다.

또한 브레즈닉의 음반과 DVD 세트인 “마르틴 브레즈닉의 정수 (The Essential Martin Bresnick)”와 그 안에 포함된 「두 성(性)을 위하여: 천국의 문」의 무어의 연주 DVD 가 2006년에 출시되어, 이 연주 DVD에 작곡가 마르틴 브레즈닉, 동영상 제작자 와인버그, 그 작업을 감독

한 로버트 브레즈닉, 연주한 무어, 그리고 영문학자 블룸의 인터뷰 등이 담겨 있어서, 브레즈닉의 작품을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다.

피아노가 포함된 멀티미디어 작품을 연주할 때, 피아노 연주자에게 확대된 연주자의 역할이 요구될 수 있다. 브레즈닉의 작품에서, 피아니스트는 동영상과 맞추어 음악을 연주하면서 동시에 해설자이자 낭송자이며, 노래를 불러야 하고, 소도구를 이용하여 극을 위한 행위까지 하는 것이 요구되었다. 필자의 경우는 브레즈닉의 작품을 연주할 때, 목소리가 작다는 것과 원어민이 아니라서 시 낭송과 노래를 할 때 영어 발음이 완벽하지 못해 전달이 어렵다는 점 등이 걸림돌이 되었다. 영어를 사용하는 원어민이 시 낭송과 노래를 하고 필자는 피아노 연주만을 하는 방법이 제기되었으나, 그것은 작곡가 브레즈닉이 의도한 바가 아니기에, 연기를 지도하는 원어민에게서 발음과 억양, 표현지도를 받고, 마이크를 사용하여 연주를 하였다. 시나 노래는 거의 외울 정도로 반복 연습을 해야만 피아노 연주와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룰 수 있다. 멀티미디어 작품을 연주하기 위해 연주자에게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시도들을 해야 하는 경우, 연주자는 기꺼이 받아들이고 배우고 노력하려는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

다. 동영상 재생

멀티미디어 작품 연주 시 동영상 재생을 해야 하는 경우라면, DVD를 틀어놓고 함께 연주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피아노 연주나 다른 요소들과 마찬가지로, 동영상도 분석하여 외울 정도로 그 내용과 순서를 자세히 알고 있어야 한다. 필자의 경우, 동영상에서의 블레이크의 그림들의 의미들을 다시 분석하며, 작곡가 마르틴 브레즈닉과 와인버그와 로버트 브레즈닉의 깊이 있는 해석과 심미안에 크게 감명을 받았는데, 사실 이것은 블레이크의 시와 그림들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난 후에야 가능했다.

어느 정도 브레즈닉의 음악과 블레이크의 시와 동영상을 공부한 후에, 무어의 「두 성(性)을 위하여: 천국의 문」 연주 DVD를 틀어놓고 그 속도와 흐름을 익히면서 함께 연주를 해 보고, 악보에 시간을 적어놓았다. 이때, 연주자 자신이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자신만의 방법으로 필요한 만큼 자세하게 기록을 해 놓는데, 시간 외에도 동영상의 특기할 만한 사항이나 혹시라도 동영상과 맞지 않았을 때 다시 잘 병행할 수 있도록 대비하기 위해 메모를 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동영상에 아무런 그림이 나오지 않을 때는 다시 동영상에 그림이 등장할 때 잘 맞추기 어려우므로, 철저한 시간 관리를 해야 한다. 필자는 정확한 시간 관리를 위해 스톱워치를 구입하여, 무어의 연주 동영상을 참고하며 악보에 시간을 적어 놓았다. 그러나 막상 연주할 때 상영해야 하는 작곡가 브레즈닉으로부터 받은 소리가 없는 블레이크 그림 동영상으로 시간을 제어 보니, 영화처럼 제작된 연주 DVD와 시간 차이가 있어서 다시 시간을 적어야 했다. 연주를 할 때 악보와 동영상과 스톱워치를 동시에 보아야 하므로, 세 가지를 함께 보는 연습을 하였다.

지속적으로 음악, 시 낭송과 노래, 동영상에 익숙해지면서 동시에 모든 것을 통합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 하는데, DVD를 틀어놓고 보면서 피아노를 치면서 시를 낭송하고 노래하면서 타이밍을 잘 맞추는 연습을 충분히 하여야 한다. 연습을 하면서 표현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요소들이나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는 부분을 점검하여 보충해 나가면서 모든 요소들을 함께 완성시킨다.

혹자는 이러한 멀티미디어 작품을 연주할 때, 연주자가 악보를 펴 놓고 연주하면, 연주자가 악보를 보면서 피아노를 치고, 악보에 인쇄되어 있는 시를 읽고, 동영상을 보면서 쉽게 연주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실제 연주에서 이 모든 것을 함께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므로 모든 요소들을 거의 외우고 있을 만큼 준비를 하여야 한다. 시 낭송과 노래를 피아노를 치면서 하는 것도 어렵지만, 더욱 어려운 것은 동영상은 이미 제작되어서 상영되므로, 고정되어 있는 동영상의 시간에 유동성 있게 흘러가는 실제 연주 시간을 정확히 맞춰야 하는 것이다. 모든 요소들이 조금이라도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완벽에 가깝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실제 연주에서는 DVD 상영으로 인해 겨우 악보만 볼 수 있을 정도의 최소한의 조명만이 허용되고, 한 순간의 실수나 오차도 큰 영향을 끼치므로, 음악, 시, 동영상의 순서와 모든 내용이 연주자의 연주 계획에 있지 않으면 효과적이고 성공적인 연주는 기대할 수 없다.

라. 기타

멀티미디어 작품 연주 시에는 아주 사소한 준비라도 소홀하면 성공적인 연주를 할 수 없으므로 연주자가 소도구들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이러한 소도구들도 미리 준비하고 연습하여야 한다. 브레즈닉의 작품의 경우, 플라스틱 카드를 놓을 위치도 미리 정하여 연습해야 한다. 플라스틱 카드를 사용해야 할 때 민첩하게 손에 쥐고 피아노의 검은 건반을 굵은 다음 속히 연주에 지장을 주지 않는 그 어딘가에 다시 놓아야 하기 때문이다. 플라스틱 카드 등 소도구는 자칫 잊기 쉬우므로, 연주 당일에 신경 써서 챙겨 놓아야 한다.

또한 악보를 보면서 연주를 한다면 악보를 넘기는 사람과의 호흡이 중요하다. 악보가 가로로 보통 악보 크기의 두 배 정도 크다면 악보를 넘길 때 시간이 더 걸려서 악보가 넘어가는 부분에서 흐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브레즈닉의 작품에서, 여러 부분에서 음악뿐 아니라 낭송해야 하는 시가 적혀 있기도 하고, 악보가 넘어가는 부분에서의 동영상과의 타이밍은 특히 중요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연주자가 음악과 시와 동영상을 거의 다 외우고 있다 하더라도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악보를 넘기는 사람과 미리 연습을 해야 한다.

멀티미디어 작품의 성공적인 연주를 위해서, 작곡가의 의도를 알 수 있는 프로그램 노트나 관련 자료, 음반이나 동영상 등을 찾아보거나, 해당되는 음반이나 동영상이 없다면 작품을 연주했던 연주자들이나, 또는 비슷한 작품을 연주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는 것도 바람직하다. 같은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거나, 비슷한 구성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는 멀티미디어 공연을 관람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 연주자 자신이 공연할 연주 장소나 혹은 다른 장소에서라도, 실제 공연을 관람하면, 피아노를 놓을 위치나, DVD 상영에 관련된 사항이나, 음향의 조화 등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던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더 개선된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들을 얻을 수 있다.

현대 음악의 경우는 작곡가가 생존해 있다면 직접 만나서 대화 하거나 전화나 이 메일 등을 통해 궁금한 점을 묻고 조언을 듣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대부분의 현대 작곡가들은 자신의 웹사이트에 작품들과 프로그램 노트, 평론가의 평, 관련 기사, 논문, 연주 계획, 연락처 등을 수록해 놓고 있다. 작곡가와의 대화를 통해서 작품에 대한 의문점들을 해결하고, 작품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다. 현존하는 작곡가의 작품을 연주하는 경우, 작곡가와 소통할 수 있어서 더 정확한 의도를 알고 연주를 준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연주자에게는 그만큼 정확한 연주를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을 수 있는데, 작곡가의 조언과 격려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2. 연주에 필요한 실질적인 절차와 유의할 점

가. 연주 장소의 환경 및 시설 점검

멀티미디어 작품을 연주할 때는 연주 장소가 매우 중요하다. 연주자는 작품의 효과를 살릴 수 있는 최상의 장소를 물색하고 선택하여야 한다. DVD를 상영해야 하는 경우는 그것이 가능한 여건이 되는지, 또 연주장소의 크기와 형태를 고려하여 멀티미디어 작품이 연주되기에 적합한지 사전에 점검하여야 한다. 무대의 크기, 악기를 놓을 장소와 방향, 상영하는 DVD가 어느 장소에서나 잘 보이는지, 음향은 어떤지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그랜드 피아노의 경우, 화면이 높이 설치되어 있는 무대가 아니라면 피아노 뚜껑을 여는지에 따라 열린 뚜껑이 화면을 가릴 수 있기 때문에 피아노를 놓을 위치를 잘 결정해야 한다. 그 외의 피아노도 방향과 위치가 중요하다.

또 연주자의 모습도 잘 보여야 하므로 연주자가 어디서나 보일 수 있는지, 피아노 소리나, 혹은 연주자의 목소리까지 들려야 하는 경우라면 연주자의 목소리도 어디서나 잘 들릴 수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연주자의 목소리에 따라 마이크를 사용해야 하는 작품일 경우, 마이크의 용량과 소리의 크기도 결정해야 한다. 연주를 녹음하고 싶다면, 악기 소리와 목소리를 함께 녹음할 때의 마이크의 종류와 용량이 녹음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것 또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나. 연주 장소에서의 사전 연습의 중요성

멀티미디어 작품은 미리 해 보는 사전 연습이 중요한데, 연주 장소나 DVD 설치 여부, 마이크 사용 여부 등을 미리 점검하였다고 해도 실제로 사전 연습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필자의 경우, 연주를 했던 연주 홀의 DVD 플레이어의 갑작스런 고장을 담당자가 미리 통지를 해 주지 않아서 리허설 바로 직전에 조치를 취해야 했던 경험이 있다.

동영상 DVD를 연주에 첨가하는 경우, 동영상을 효과적으로 상영하려면 조명 없이 어두워야 하는데, 연주자는 피아노를 치면서 악보를 보아야 하므로 피아니스트에게는 최소한의 빛이 필요하다. 연주 장소에 설치되어있는 등이나 조명을 이용할 경우, 화면에 반사되어 아주 일부분이라도 동영상 상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피아노 위에 놓거나 옆에 세워서 악보만 볼 수 있는 스탠드를 설치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스탠드의 크기도 고려해야 하는데 연주자나 청중이 볼 수 있는 화면을 가려서 방해가 되지 않는, 적당한 크기의 스탠드를 선택하도록 한다. 스탠드의 색깔은 피아노와 동일한 색이나 검정색이 가장 무난할 것이다. 만일 연주자를 더 부각시키고, DVD를 상영할 화면이 높이 달려 있고 무대가 아주 넓어서 화면 중앙 앞에 뚜껑을 연 그랜드 피아노를 놓아도 화면 전체가 다 보인다면 연주자에게도 조명을 비출 수 있어서, 굳이 스탠드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럴 경우는 화면의 동영상은 선명하지 않고 조금 흐리게 보일 확률이 높다. 무대의 조명을 다 끄고 피아노 연주자에게만 따로 비출 조명을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그런 방법을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연주에 도움이 될 스톱워치를 사용한다면 스톱워치를 놓을 자리도 미리 결정해야 한다. 가로로 긴 악보를 보면서 연주하는 경우, 보면대에 따라 스톱워치를 놓을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보면대 위에 스탠드까지 설치해야 한다면 사실상 공간이 별로 없다. 고정이 되지 않는 스톱워치를 사용할 때는 연주 중에 기울어져서 시간을 볼 수 없게 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실제 연주를 할 때는 악보만 겨우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악보에 명시된 시를 낭송할 경우는 활자가 작은 경우가 많아서 거의 외우고 있지 않으면 왼편에 스탠드를 놓을 경우 오른편 악보 끝의 활자들은 잘 보이지 않아서 실수를 할 가능성이 높다. 시 낭송이나 노래 부르기, 동영상까지 함께 상영한다면 대부분 큰 화면의 동영상도 무대에 있는 연주자에게는 가까워서 그 윤곽을 자세히 볼 수 없으며, 거의 외우고 있는 상황에서 동영상의 밝고 어두움, 큰 윤곽 정도만을 감지하면서 음악과 시 낭송을 진행 시켜야 한다. 악보를 넘기는 사람이 일어나서 악보를 넘기는 경우에도 동영상을 볼 수 없으므로 악보가 넘어가는 그 순간에 음악, 시, 동영상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신경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마이크를 사용해서 연주해야 하는 멀티미디어 작품일 경우, 얼굴이나 옷 등 몸에 부착할 수 없는 마이크를 사용해야 한다면 마이크의 위치도 정하고 사전 연습을 해 보아야 한다. 악보를 넘기는 사람과 스탠드와 스톱위치도 함께 필요한 경우라면 연주자의 연주에 방해가 되지 않는 위치에 마이크를 설치해야 하며, 이때 마이크 사용에 관련된 연주 장소의 상황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연주할 때의 의상은 작품의 내용에 맞는 의상을 권한다. 작품의 내용과 연주자의 역할에 따라 적절한 의상과 근접한 분위기의 소품을 사용하는 것이 연주자까지 예술작품의 일부분으로 참여하게 하여, 연주효과를 배가시킨다고 하겠다.

IV. 결론

본 연구에서는 브레즈닉의 멀티미디어 작품인 「두 성(性)을 위하여: 천국의 문」을 통해서 어떻게 멀티미디어 작품을 이해하고 분석하고 연주하는지, 보다 성공적이고 효과적인 연주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준비 절차를 거치고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논의하였다. 브레즈닉의 작품의 바탕이 된 블레이크의 시와 그림, 브레즈닉의 음악, 블레이크의 그림들의 동영상에 대해 차례로 소개하고, 어떻게 브레즈닉이 여러 요소들을 결합하고 적용시켰는지 고찰하였다. 또한 멀티미디어 작품을 연주할 때 음악과 관련 자료들을 어떠한 과정을 통해 습득하는지, 실제 연주를 위한 실질적인 절차와 유의할 점을 제시하였다.

멀티미디어 작품을 연주하려면, 여러 단계를 거치고 다양한 시각에서 작품을 공부해야 하는데, 이것은 예술에 대한 시야를 넓혀주고,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해 준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호기심과 열정이다. 왜? 라는 물음을 가지고 연구하다가, 여러 각도에서 공부한 것들이 퍼즐이 맞춰지듯이 하나로 맞춰지며 그 답에 다다르게 되었을 때의 기쁨은 크다.

그렇다면 멀티미디어 작품을 만들고, 연주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본 논문에서 고찰한 브레즈닉의 「두 성(性)을 위하여: 천국의 문」의 경우, 브레즈닉은 같은 제목의 블레이크의 예술 작품에서 블레이크가 그 시대에 할 수 있었던 모든 표현법, 즉 시, 미술, 노래들을 가져와 브레즈닉이 표현할 수 있는 모든 방법, 음악, 시 낭송, 노래, 그리고 평면적 그림이 입체적으로 움직이는 듯이 보이는 생생한 동영상까지 첨가하였다. 왜 그들은 이렇게 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여 간절히 무엇을 알리려 했을까? 블레이크와 브레즈닉은 가장 원천적이고 불가사의한 물음,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어떠한 단계를 거쳐 성장하고 죽어 가는가? 우리는 끝도 없이 방황하는 여행자, 방랑자인가? 이 세상에서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더 영원한 세계로 가는가? 에 관한,

미래에 대한 희망을 독자들에게, 청중들에게 확실하고 뚜렷하게 알리고자 하였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남성과 여성이, 늙은이와 아이가, 기성세대와 새로운 젊은 세대가, 아버지와 아들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강자와 약자가, 모두가 용서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보다 나은, 상징적인 의미의 이 세상, 물질 만능의, 불합리한 세상이 아닌 이상적인 희망의 낙원으로 갈 수 있다는 비전을 보여 주려고 하였다. 필자는 브레즈닉이 이 작품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블레이크의 비전을 보여 줄 수 있다고 확신한다.

멀티미디어 작품은 잘 통합되지 않으면 산만하고 본래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에 집중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브레즈닉의 작품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에필로그의 주제 선율이 나 곳곳의 결정적인 부분에서 동영상에 아무 그림 없이 음악에만 집중하게 하는 것이 그렇다. 그래서 멀티미디어 작품을 이해하고 연주 할 때는 그 여러 요소들이 잘 융합하고 조화를 이루어 연주할 수 있도록 이해와 적용을 위한 충분한 시간들이 필요하다. 연주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각각, 또 병행해서 학습하고, 마지막에는 작품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바탕이 된 상태에서 세심한 준비와 절차를 이루어야 성공적인 연주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도자는 멀티미디어 작품의 효과와, 습득과 연주의 어려움 등에 대해 심도 있게 이해하고 있어야만 학생들을 지도 할 때 각각의 작품 특성에 맞게 학생들을 지도하고 배려하고 이끌 수 있을 것이다.

멀티미디어 작품은 작품마다 구성이 다르고, 학습하고 연주하는 개개인의 접근 방법이나 습득 절차가 달라서, 어떠한 방법이 최선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 연구의 내용이 멀티미디어 작품을 공부하는 학생과 연주자, 지도자, 관심이 있는 모든 이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 참고 문헌

- Auler, R. M. (2006). "Martin Bresnick's *For the Sexes: The Gates of Paradise*: Analysis of a Multi-Media Composition." D. M. A. Diss., University of Cincinnati.
- Bindman, D. (2000). *William Blake: The Complete Illuminated Books*. New York: Thames & Hudson in association with The William Blake Trust and The Tate Gallery.
- Blake, W. (1968). *The Gates of Paradise. For Children. For the Sexes*. Introductory volume by Geoffrey Keynes with preliminary sketches by William Blake. London: The Trianon Press for the William Blake Trust.
- Bloom, H. (1963). *Blake's Apocalypse*. New York: Doubleday & Company, Inc..
- Bresnick, M. (2005). *For the Sexes: The Gates of Paradise*. New York: Carl Fischer.
- Bresnick, M. (2003). *The Dream of the Lost Traveller*. New York: Carl Fischer.
- Bresnick, M. (2006). *The Essential Martin Bresnick*. Cantaloupe Music CA21041, 2-Disc set.
- Erdman, D. (ed.) & Bloom, H. (commentary). (1988). *The Complete Poetry & Prose of William Blake*. New York: Anchor Books, a division of Random House, Inc..
- Hays, T. (Spring, 2004). "William Blake's Androgynous Ego- Ideal." *ELH* 71, no.1 : 141-165.
- Park, S. (2015). "Aural, Visual, and Literary Aspects of Martin Bresnick's *For the Sexes: The Gates of Paradise*." D. M. A. Thesis,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 Abstract

Martin Bresnick's *For the Sexes: The Gates of Paradise*: Analysis of a Multi-Media Composition, and Guidelines for Its Performance

Suhyoung Park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general guidelines for effectively preparing multi-media works for piano performance. The musical composition *For the Sexes: The Gates of Paradise*, for piano solo and DVD projection by American composer Martin Bresnick (b. 1946) is based on the emblematic drawings and illuminated manuscripts of the same title by the English poet and visual artist William Blake (1757-1827). Bresnick's work is examined here to offer a way of understanding the text, music, and visuals separately, and to show how these three elements are combined in performance. This essay also examines how and what to prepare for the successful performance of a multi-media composition. Therefore, the hope of this study is to serve as a useful guide for performers.

Key Words: Martin Bresnick, *For the Sexes: The Gates of Paradise*, William Blake, multi-media, piano, text, music, visuals